

정혜연 HYEYEON CHUNG

정혜연(Hyeyeon Chung)은 회화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섬유,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기억과 풍경,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탐구하는 파인아트 작가다.

UAL, Camberwell College of Arts에서 MA Fine Art: Drawing을 졸업했으며, 반복적인 선과 레이어를 통해 물질과 자연, 인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Circle Back; 잇다. 입다》에서는 데드스톡 의류를 조각적 오브제로 재구성하며, 몸과 물질, 기억이 만나는 Wearable Object를 선보인다.

"I view my creative practice as an archival endeavour."
저는 저의 창작 행위를 기록(archive)의 실천으로 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는 몸의 움직임과 시간이 만든 흔적이 자연스럽게 축적된다. 이번 작업은 이러한 흔적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한다. 작가는 데드스톡 의류를 드레이핑하여 조각적 오브제로 재구성한다. 의복은 더 이상 기능적인 옷에 머무르지 않고, 몸을 둘러싸는 하나의 구조이자 드로잉이 된다. 투명한 중고 의자는 잠시 몸을 대신하는 구조물로 기능하며, 옷은 입혀진 상태와 벗겨진 상태 사이에서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전시가 끝난 뒤 의자는 다시 누군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의복 또한 또 다른 시간을 이어간다. 이 작업은 업사이클링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물질에 축적된 기억을 다시 연결하는 Archive Piece이자 Wearable Object로 제안한다.